



스리랑카

정국 혼미에도 불구하고, 타밀반군과의 전면적인 내전 재개 가능성은 낮아

8월 12일 저녁(현지 시각) 발생한 라크시만 카디르가마르(Lakshman Kadirgamar) 외무장관의 피살로 스리랑카 정국이 혼미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찬드리카 쿠마라통가

〈그림〉 타밀반군이 주장하는 영토



자료 : Economist, 2003. 7. 11

(Chandrika Bandaranaike Kumaratunga) 대통령은 13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외무장관 살해의 배후로 스리랑카 정부와 오랫동안 적대관계에 있는 타밀반군¹⁾을 지목했다. 쿠마라통가 대통령은 텔레비전을 통해 방송된 대국민 성명을 통해 이번 외무장관 피살을 ‘끔찍하고 야만적인 테러행위’로 강력히 비난하였으나, 그 동안 추진해 왔던 평화 정착 및 정치적 안정을 위한 노력은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쿠마라통가 대통령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스리랑카에서 빠른 시일 내에 정치적 안정이 회복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 이유는 ① 올해 6월의 연정 붕괴로 이미 스리랑카의 정치지형은 격변기에 들어섰으며,

1) 정식 명칭은 ‘타밀 엘람 해방 호랑이(Liberation Tigers of Tamil Eelam: LTTE)’. 스리랑카 인구의 약 75%를 차지하는 지배 민족인 싱할리족(불교)과 전 인구의 17%를 차지하는 소수 민족인 타밀족(힌두교)간의 갈등은 그 뿌리가 깊음. 그러나 1972년 이후 간헐적으로 발생했던 유혈 사태가 본격화된 것은 강경파인 LTTE가 타밀족 내에서 주도권을 장악한 1983년 이후임. 스리랑카로부터의 완전 독립을 주장하는 LTTE와 스리랑카 정부간의 내전은 아시아에서 진행된 가장 오랜 내전으로 기록되었으며, 2002년 2월 노르웨이의 중재로 휴전협정이 서명되기까지 20여 년간 약 6만 5,000명의 목숨을 앗아갔음.

② 쿠마라통가 대통령의 임기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③ 향후 타밀반군과 싱할리족 우월주의자 등 극단주의자들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올 6월 연정 붕괴로 정치 지형의 급격한 변화 이미 예견

쿠마라통가 대통령이 이끄는 국민연맹(People's Alliance)은 2004년 4월 실시된 총선에서 승리하여 제 1당으로 부상하였으나, 총 225석 중 105석을 확보하는데 그쳐 과반수 확보에 실패하자 '국영기업의 민영화 반대' 및 '타밀반군에 대한 강경 진압' 등을 주장해온 극좌파 싱할리족 우월주의 정당인 인민해방전선(Janatha Vimukthi Peramuna; JVP)을 연정 파트너로 선택하기에 이르렀다.²⁾ 이에 JVP의 급진 좌파성향에 불안을 느낀 해외투자자와 국제사회의 압력이 가중되었고, UPFA-JVP 연정이 조만간 깨질 것이라는 전망이 끊임없이 제기

되어 왔다. 실제로 지난 6월 JVP가 연정탈퇴를 공식 선언³⁾하면서 그동안 위태롭게 안정상태를 유지해 오던 스리랑카의 정치 상황은 급변하게 되었고, 여기에 타밀족 출신이면서도 타밀반군에게 강경한 입장을 견지해 오던 외무장관이 피살되면서 정국은 혼미 속으로 빠져들게 된 것이다.

한편, 연정 붕괴와 외무장관 피살 이전부터 스리랑카 정가에서 논란이 되었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현 대통령의 임기가 언제 종료되는가 하는 것이다.⁴⁾ 대통령의 임기 종료시점에 대해 여야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서, 국제사회의 중재나 스리랑카 대법원의 결정⁵⁾을 통하지 않고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선 실시 시기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의 정치 상황을 예측하기는 매우 어려우나, 쿠마라통가 대통령이 머지않은 장래에 대통령 직에서 스스로 물러나⁶⁾ UPFA의 대표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

2) JVP와의 연정 성립 후 국민연맹(People's Alliance)은 통일국민자유연맹(United People's Freedom Alliance : UPFA)으로 개칭하였음.
 3) 연정 탈퇴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스리랑카 정부가 국제사회의 압력을 못 이겨 2004년 12월에 발생한 쓰나미 피해 복구를 위한 협의체(Post-Tsunami Operations Management Structure)에 타밀반군을 포함시키려하자 JVP가 이에 반대했기 때문임. 불교당(Jathika Hela Urumaya) 정치인을 포함한 다수의 불교 승려도 이러한 JVP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스리랑카 정부의 구상대로 타밀반군이 동 협의체에 참여한다면 이는 '테러집단을 합법화하는 행위이며 국가 주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음.
 4) 엄연히 헌법에 대통령의 임기가 6년(1회의 재임이 가능하므로 총 12년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도 임기가 언제 종료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확산되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현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은 1999년 말로 거슬러 올라감. 1994년 말 선출된 쿠마라통가 대통령은 임기 1년을 남겨놓은 1999년 말 당시 정치적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 조기 대선을 실시하였고, 여기서 승리를 거두어 계속 대통령 직을 수행할 수 있었음. 그러나 두 번째 임기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에 대해서 야당은 대선 승리가 확정된 1999년 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잔여 임기 1년을 마친 2000년이라고 주장하면서 양측이 각각 2005년과 2006년이 임기 종료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임.
 5) 호주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쿠마라통가 대통령에게 금년 말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한편, 지난 8월 4일 쿠마라통가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가 언제 실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대법원에 그 결정을 요청하였고 본격적인 심리는 8월 22일부터 시작되었음.
 6) 실제로 사임하게 되면 스리랑카 헌법에 의해 집권당인 통일국민자유연맹 소속의 Mahinda Rajapakse 수상이 대통령 직을 물려받게 됨.

럽게 제기되고 있다. 현행 헌법상 더 이상 대통령 재선이 불가능하므로 UPFA의 대표 자격으로 총선을 치르면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총리에 취임할 수 있고, 패배하여도 최소한 제 1야당의 대표자리는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측 모두 전면적인 내전을 재개하기 어려운 상황

이번 외무장관 피살 이후 온건주의자의 입지가 축소되고 타밀반군과 싱할리족 우월주의자 등 양측의 극단주의자들이 득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양측간 무력 충돌과 테러가 빈번해질 것이나 전면적인 내전의 재개로 발전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 이유로는 우선, 스리랑카 정부가 전면적인 반군 소탕작전에 나설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미 2004년 말 발생한 쓰나미의

영향⁷⁾으로 2005년 중 예년보다 낮은 4.7%의 경제성장이 예상되고, 국제사회의 원조를 제외할 경우 GDP 대비 약 8%에 달하는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쿠마라통가 대통령 역시 대국민 성명을 통해 타밀반군을 테러집단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하기는 하였으나,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도 아울러 밝힘으로써, 사실상 전면적인 소탕작전에 나설 가능성을 사전에 배제하였다.

타밀반군 역시 내부적으로는 20년 넘게 지속되면서 수많은 사상자를 낸 내전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주민자치를 얻어내지 못했다는 비판에 시달리고 있고 외부적으로는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전면적인 내전을 재개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⁸⁾ 또한, 무리하게 내전을 재개할 경우 쓰나미 피해 복구를 위한 협의체에 타밀반군이 참여하는 것에 묵시적 동

〈표〉 스리랑카 주요 경제지표 예상

단위: %

구 분	2003	2004	2005f	2006f
실 질 경 제 성 장 률	6.0	5.4	4.7	6.0
재 정 수 지 / G D P	-7.1	-7.2	-6.8	-6.4
(해 외 원 조 제외 시)	(-8.0)	(-8.2)	(-8.2)	(-7.5)

자료 : EIU Country Report, 2005. 8.

7) 전체 GDP의 약 18%와 10%를 각각 농업어업과 관광산업에 의지하는 스리랑카로서는 쓰나미가 경제에 미친 영향이 매우 컸음. 2005년 2월까지 집계된 바에 따르면 쓰나미는 스리랑카 해안선의 2/3 이상을 강타하여 총 3만 1,000명 이상이 사망하였고, 9만 9,000채의 가옥이 파괴되어 44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음. 쓰나미는 타밀족 거주지역인 북동부 해안에도 큰 피해를 주었는데, 스리랑카 정부의 주장에 따르면 쓰나미로 인해 타밀반군이 보유한 해군력이 상당히 약화되었고, 매설된 지뢰의 대부분이 유실되어 타밀반군이나 정부군 모두 본격적인 지상전을 재개하기 어려운 상황임.

8) 1997년 미국 정부가 LTTE를 테러단체로 등록하였으며, 인도, 영국, 호주 등도 이들을 테러단체로 규정하였음. 한편, 2001년의 9·11 사태 이후 LTTE의 주요한 자금 공급원이었던 미국 거주 힌두교도들의 자금 지원마저 감소하고 약 40억불로 추산되는 미국과 유럽 각국에 소재하는 예금 및 자산이 동결되면서 LTTE는 상당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의를 표했던 국제사회로부터 완전히 고립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9일 타밀반군은 정부 측과의 평화협상을 재개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외무장관 살해의 배후로 지목되면서 점증되고 있는 국내외 비난 압력을 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들을 종합해 볼 때, 향후

스리랑카에서는 대선 실시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극단주의자들의 간헐적인 유혈폭력 사태가 빈발하는 혼미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전면적인 내전으로는 발전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김기상】